

심연의 블루, 고향 바다의 풍경이 되다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아버지의 바다를 거닐었다’

‘드뷔시의 달빛을 들으며 아버지의 바다를 거닐었다.’ 미술관 1층에 자리한 이 그림 앞에서 작가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 유화 물감을 두텁게 쌓고 나이프로 밀어낸 화면은 기억과 감정이 교차하는 심상의 바다를 펼쳐 보인다.

오는 19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김혜선 작가의 기획초대전 ‘고향 가는 길’은 작가의 25번째 개인전이자 고향 광주에서 여는 첫 전시다. 40여 년간 서울과 인천을 생활 터전으로 삼은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고향의 바다, 나아가 자신의 뿌리를 되짚었다. 전시 공간은 1층과 2층으로 나뉘며 총 45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명절에 고향가는 길, 그 설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 강진, 내가 자란 광주를 떠올리며 1층은 ‘아버지의 바다’, 2층은 ‘나의 바다’로 설정했죠.”

작가는 고향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두 층의 구성을 잡았다. 아버지의 생애를 상징하는 바다는 전통과 삶의 서사가 깃든 어두운 블루톤으로 표현했다.

“블루는 아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

김혜선작가 초대전 ‘고향 가는 길’...오는 19일까지 은암미술관

버텨내고, 끝내 일어서는 ‘아버지의 바다’ 그 희망의 서사
기억의 편린속 스며든 고향 풍경 ‘나의 바다’ 화폭에 담아



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둡지만 견디고, 다시 일어서는 바다. 그게 저에게 고향의 이미지였어요.”

1층에는 이처럼 구성된 ‘아버지의 바다’가 펼쳐진다.

다. 강진에서의 유년 기억과 아버지의 생애 그리고 광주에서 보낸 학창 시절이 겹쳐진 장면들이 거친 물감층으로 형성화했다.

그중 ‘장주지몽’(莊周之夢) 시리즈는 일상의 바다가 성인이 된 후 꿈처럼 인식되는 과정을 담았다.

“작업하는 순간은 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는 현실이 아니라 ‘꿈속의 남도 바다’죠.”

2층은 명상과 치유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기존 작업들을 중심으로, 색을 덜어낸 작품과 부드러운 질감의 화면이 펼쳐진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감각은 ‘소리’다.

드뷔시 음악을 들으며 완성된 작품은 물론,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를 들으며 그려낸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같은 작품도 있다. “그 곡을 들으며, 몰락한 왕 앞에서 군중이 환호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음악의 리듬과 질감을 그림으로 풀어내고 싶었죠.”

작업 방식 또한 독특하다. 물감의 농도 차이를 활용해 층을 쌓고, 붓이 아닌 나이프로 밀며 화면을 만들어낸다.

“밑에는 묽은 물감을 깔고, 그 위에 점점 농도가 진한 물감을 올려요. 마지막엔 수제 화이트 물감으로 실리곤처럼 촉촉하게 마무리하죠. 몸 전체를 사용해서 가로지르는 이 작업은 심연을 조용히 밀어내듯, 내면을 향해 천천히 스며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어요.”

작가는 이번 전시가 오랜 시간 마음속 품어온 ‘귀향의 여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광주 특히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에서 전시를 한다는 게 행복해요. 준비하면서 고향의 색은 월가, 질감은 어떨까 끊임없이 고민했죠. 고향은 마치 감정이 스며든 기



‘장주지몽(莊周之夢)-BLUE 1’(사진 위)과 ‘병영에서 칠량까지’

억의 풍경 같아요. 그림을 통해 그런 기억과 감정을 꺼내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명진 기자

밤의 산사서 피어나는 ‘화야몽’

지리산 화엄사가 올해 여름 야간 개방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운영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교구장 우석스님은 오는 8월30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찰 경내를 야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청년 스님들과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 ‘화야몽’(華夜夢)도 진행된다. 해군대위로 복무를 마치고 화엄사 홍보국장 등으로 복귀한 범정스님(일명 꽃스님)과 같은 경력을 지닌 연우스님이 각각 진행을 맡는다.

프로그램은 오는 19일과 26일, 8월16일과 23일 총 네 차례 열리며 매회 참가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



화엄사 야경

해 선착순 접수한다.

올해 ‘화야몽’의 주제는 ‘찰나, 76분의 1초와 1.5℃’.

부제는 ‘화엄 어디로 그리고 언제’다.

범정스님은 “찰나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감각과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화엄

지리산 화엄사
내달 30일까지 야간 개방

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청년 스님들과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우스님은 “기후위기 시대,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였던 1.5℃가 무너진 지금,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사의 야간개방은 2023년 8월부터 자정까지 확대되며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화야몽’ 프로그램은 ▲청년 스님들과의 대화 ‘진짜 나를 찾는 시간’ ▲차와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는 명상 ▲묵언 힐링과 야경 투어 ▲소원 쓰기 및 가족 축원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사찰 경내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지리산의 여름밤을 온전히 체험하게 된다.

/최명진 기자

깊은 숨결·울림...대금과 판소리의 만남

내일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전통예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5일 오후 3시 13회차 토요상설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신선민 대금 연주자의 ‘서용석류 대금산조’로 시작된다.

신선민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로, 국악 교육과 창작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새내빛소리민족예술단 단장과 창작 국악그룹 ‘그루’의 멤버로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산조 무대를 통해 관객들은 남도 음악의 정서와 대금 음악의 섬세함, 전통 음악의 예술적 깊이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무대는 공현지 소리꾼의 ‘강산제 심



소리꾼 공현지(왼쪽)와 대금 연주자 신선민

청가’ 중 일부 대목이다. 광주시립창극단 단원인 그는 제24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수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 제27회 대전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공연의 대표 대목인 ‘추월만정~심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은 다양한 기교와 꺾는 소리를 통해 슬픔과 해학을 전한다.

/최명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